



순창군은 체험관광과 산업관광을 목적으로만 이번 주 순창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공식 집계만도 8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 순창에 체험 · 산업관광 몰린다

### 군, 공식 집계 800명... 전통장문화학교 행사 전통장담기 · 농장체험 진행

순창군은 체험관광과 산업관광을 목적으로만 이번 주 순창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공식 집계만도 8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 관광객을 제외하고 체험과 회의 등을 목적으로 순창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집계한 수치로 의미가 크다.

우선 순창의 독특한 자원과 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체험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주목할 행사는 서울 공릉초, 금동초 학생 100여명이 참여하는 '전통장문화학교' 행사다.

이들 학생들은 31일부터 1박 2일 동안 순창에서 전통장담기 및 농장체험을 진행하며 조상의 우수한 식문화와

순창의 농촌에 대해 알고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또 장류체험관에는 진안 진성중학교 학생 등 8개팀 400여명이 이번 주 체험 예약을 마친 상태다.

건강장수연구소에서는 바른먹거리 당뇨학교가 27일부터 30일까지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순창군이 직접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당뇨 등 만성질환에 예방법과 치유법을 배우고 건강 순창에 대해 배워가는 체험교육프로그램이다.

마이스(MICE)산업 일환 방문도 늘고 있다. 순창장류사업소에는 28일 중국대 지질학 관계자와 학생 40여명이 방문해 관광과 회의를 겸한다.

건강장수연구소에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경기지역 소비자모임에서 40여명이 체험관광을 진행한다.

마이스(MICE)는 회의(Meeting)·포상관광(Incentives)·컨벤션(Convention)·전시회(Exhibition)의 머리 글자를 딴 용어로 대형 박람회부터 상품지식·정보 등의 교류모임 유치까지를 총칭하는 용어다.

군은 봄을 맞아 체험관광은 물론 산업관광객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 시설 준비를 서두르고 사전에 마케팅 대상을 정해 집중 홍보하는 타겟마케팅을 실시해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순창=이양철 기자

# 남원시, 민간보급 전기차 9대 주인공 선정

### 내년에 전기차 보급 대수 확대

남원시는 2017년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에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3월 24일 환경과 사무실에서 전기차 4대에 대한 공개추첨을 진행하여 총 9대에 대한 전기차 주인공을 선정하였다.

이중 1순위(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5명을 제외한 신청자(일반 시민, 기업, 단체 등)를 대상으로 4대를 추첨하고 구매 포기자가 발생 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대상자 5명도 추가로 선발하였으며 보급차종은 기

아자동차 레이EV, 쏘울EV,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르노삼성자동차 SM3, BMW Korea i3, 닛산 LEAF로 총 6종이다.

시는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환경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았으며, 30명의 신청자 중 16명이 참여하여 총9대(기업 1개소, 일반 시민 3명)와 1순위 5명)에 대해 1대당 2,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 된다.

충전기는 (주)지엔텔, (주)에버온, (주)KT,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주),

(주)포스코ICT 등 5개 기업 중 사업 자별 제공가격과 설치비용, 제공 서비스 등을 사전에 비교한 후 설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전기차 구매자는 가장 내 비용용 충전기를,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은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에서도 공용으로 충전기 설치지원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전기차 누리집 (http://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전기차 보급 대수를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고창굿 한마당 축제 '성황'

### 구정놀이 · 도둑잡이굿 · 설장구 등 벌여

(여고창농악보존회(회장 이명훈)의 '제15회 고창굿 한마당'이 최근 서울 신촌 창천문화공원에서 펼쳐졌다.

'세대와 지역을 아울러 하나 된다'는 슬로건 아래 젊음의 거리 신촌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관객 500여 명과 고창농악보존회원 30여 명, 고창농악 전수생 100여 명이 참여하며 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에서는 고창농악보존회원들의 관중, 전수생들의 구정놀이와 도둑잡이굿, 고창농악 이수자들의 설장구, 성곡희대 탈 등

아리 학생들의 고성오광대 덧베기춤 등이 펼쳐져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마지막 공연인 대동놀이에서는 신촌 일대를 찾은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굿, 삶, 사랑'이라는 주제로 사진전도 개최됐다. 고창농악을 전수받은 전수생들과 고창농악을 지켜가고 있는 농악인들을 포착한 300여 컷의 사진들이 전시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 박우정 고창군수, 주요 사업장 방문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주요사업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군정 전반에 대해 군민과 소통하는 현정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은 박우정 고창군수가 흥덕 문화마을~동사삼거리간 도로개설사업,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사업 등 주요사업장을 방문했다고 27일 전했다.

흥덕 문화마을~동사삼거리간 도로개설사업은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도모를 위해 8억원의 사업비

를 투입하여 연장 258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5월 완료될 예정이다.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사업은 총 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운곡습지 일원에 탐방로 복원과 관찰데크 설치, 친환경주차장 조성, 습지 방문자센터 신축공사를 완료했으며, 올 7월까지 습지방문자센터 전시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전시관공사 실시실 계획 중에 있고, 총 40여원이 투입된 개선지역 복원사업은 지난 12월에 완료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임실정수장, 시범진단 대상시설 선정

임실군은 마역과(여과방식) 정수시설 기술진단 매뉴얼 개발 및 보안을 위한 시범진단 대상시설로 임실정수장이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하고 대한상수도화회에서 수행하는 이 사업은 환경부의 '정수장 기술진단 매뉴얼'을 보완하는 시범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설 현황과 운영실태 조

사, 기술진단 항목 및 진단방법 개발 등 개선점을 도출하고 마역과 기술진단 표준 매뉴얼을 개발한다.

상하수도사업소는 3월부터 용역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왔으며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관계자의 시설 출입을 허가하고 각종 기술진단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임실=진흥영 기자

# 지역 소식통

## 농촌공사 남원, 장동 · 덕공지구 개보수사업 100억원 예산 확보

한국어농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박재근)는 신규 사업지구로 장동 · 덕공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금년부터 2020년까지 노후 저수지 제방, 수로교, 용 · 배수로 등 개량보수를 추진 한다고 밝혔다.

남원지사에 따르면 장동지구에 51억원을 투입해 남원시 주천면 장안리에 위치한 장안저수지 제방 덧쌓기, 제방사석, 누수보강 등을 시행하고, 동화간선 수로교 이음부분 누수 및 노후로 파손된 부분에 대해 보수 · 보강을 완료해 수해면적 3,024ha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덕공지구에 49억원을 투입해 남원시 운봉읍 덕산 · 공안리 일대 용배수로 15조 14.4km에 대해 노후 용 · 배수로 개량보수 및 흙수로 구조물화로 사업이 완료되면 수해면적 146ha에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원지사는 노후 시설물의 적기 보수 · 보강으로 재해예방과 영농편의를 위해 2016년까지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826억원 투입해 시설물 47개소 개보수, 용·배수로 715km의 구조물화를 했으며, 최근 빈번한 지진 발생,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에 취약하거나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 개보수를 통해 재해예방 및 물 손실을 최소화하여 농업인의 안전영농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한국전력 임실지사-일진제강 Hybrid 분산형전원 설치 MOU 체결

한국전력 임실지사(지사장 김문수)는 일진제강(공장장 백운학)과 Hybrid 분산형전원 설치에 대한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저장하는 ESS(에너지저장 시스템) 설치, 전력시설에 긴급재난 발생 시 인력 및 장비 지원, 전력기술 컨설팅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김문수 지사장은 "앞으로도 주요고객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정보 및 기술을 지원하고 태양광발전 컨설팅을 통한 고객 수익창출에 이바지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 여름이 시작될까?

### 관촌 사선대

2천년전 네 신선과 네 선녀의 전설을 간직한 사선대는 조각공원 및 체육시설과, 청소년수련원, 인조잔디구장을 갖추고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 전담 구담마을

섬진강 강변과 산이 어우러져 한쪽의 수채화를 담아 낸 듯한 마을로 포장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 옥정호 순환도로 드라이브길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전국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이 길은 수목산수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 옥정호 붕어섬(외얏날)

호수 속에 있는 신비로운 섬!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봄과 가을에는 물안개로 경관이 절정에 이릅니다.

**임실군**